

2022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기계 | 조선 | 전자 | 섬유 | 철강 | 반도체 | 자동차 | 디스플레이 | 건설 | 금융 및 보험



목차

	요약	02
	기계	06
	조선	10
	전자	14
	섬유	18
	철강	22
	반도체	26
	자동차	30
	디스플레이	34
	건설	38
	금융 및 보험	42
	용어정의	46
	전망방법	47

요약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전자·철강·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금융 및 보험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섬유·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업종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 및 보험
증가(↑)	유지(↔)	증가(↑)	유지(↔)	증가(↑)	증가(↑)	유지(↔)	유지(↔)	유지(↔)	감소(↓)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기계 : 수출, 내수 증가와 함께 고용 증가 예상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으나, 미국·유럽 인프라 구축과 아세안 지역 제조업 활성화로 기계 업종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내수 역시 증가하지만 반도체 수급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하방 리스크가 남아 있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내수 증가와 함께 기계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1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선 : 전년 대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축소에도 LNG 운반선, 친환경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예상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모멘텀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선가 급등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세로 2022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른 해운 운임 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LNG 운반선 수요 증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선박 대체수요 증가 등의 요인은 국내 조선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전 세계 선박



전자 :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대외여건 불확실성 심화에도 수출 단가 상승,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 전망

2022년 전자 업종은 전 세계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공급망 불안정 지속 등의 영향에도 수출 단가가 상승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여파 등으로 부진이 예상되며, TV는 엔데믹 국면에서 전년 대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국내 업체는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하반기 TV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PC 시장 역시 전년 대비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높은 출하량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에도 전자 업종은 수출 단가 상승,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1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섬유 : 섬유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수준 고용 유지 전망

국내 섬유 업종은 전 세계 섬유 경기 회복, 보복소비 영향 등으로 교역 회복과 내수 개선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개선 폭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수출 및 내수 증가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생산 증가세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7%(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철강 :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나 수출, 생산 성장세 둔화와 함께 고용 증가폭 축소 전망

2022년 철강 업종 생산은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 축소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조선 업종을 제외한 전방산업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척되면서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수출은 전 세계 경기 회복이 지체되면서

요약

전년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 세계 경기 둔화에도 국내 철강 업종은 중국의 조강 생산 감축과 유럽의 철강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호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가 예상되나 수출, 생산 성장세 둔화와 함께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반도체 : 수출 증가세 지속, 설비 투자 증가와 함께 고용 증가 전망
국내 반도체 업종은 2020년 하반기부터 24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소비자용 IT 수요 약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출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도 역시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 되면서 반도체 설비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3%(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 견고한 친환경차 수요와 그간 발생한 이연물량 등으로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2022년도 하반기 자동차 업종은 친환경차 수출 및 판매호조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전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간 출고지연으로 발생한 이연물량과 견조한 친환경차 수요로 인해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국내 브랜드의 해외 판매호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자동차 수요 위축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 생산도 전년도 기저효과와 반도체 수급난의 점진적 완화 가능성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와 불안정한 부품 수급 상황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한다. 그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업종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 LCD 생산 축소에도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 및 QD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힘입어 2022년 수출이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OLED의 경우 기존 모바일과 TV 중심에서 각종 IT제품으로 수요처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6.1%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LCD의 경우 국내 생산 축소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32.5%의 수출 감소가 예측된다. 국내 LCD 생산 축소에도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설 : 건설 수주는 소폭 줄어들지만 건설 투자 증가와 함께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예상
2021년 건설 수주는 공공, 민간 건설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건설 수주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자재비용, 금융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상반기에는 토목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투자가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건축 투자가 증가하면서 건설 투자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재비용, 금융비용 상승과 함께 건설 수주가 소폭 감소하지만 건설 투자 증가와 함께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30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융 및 보험 : 수익성 개선에도 대내외 금융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고용 감소 전망
2022년 상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했던 은행 산업은 2022년 하반기에도 예대 금리차 확대와 함께 순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 상승,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으로 인한 부실여신 증가 위험이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증가세를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은 보험 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가 하락과 자동차 보험 손해율 및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생명보험 산업과 손해보험 산업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및 보험 업종은 수익성 개선에도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부실여신 증가 위험 등 대내외 금융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2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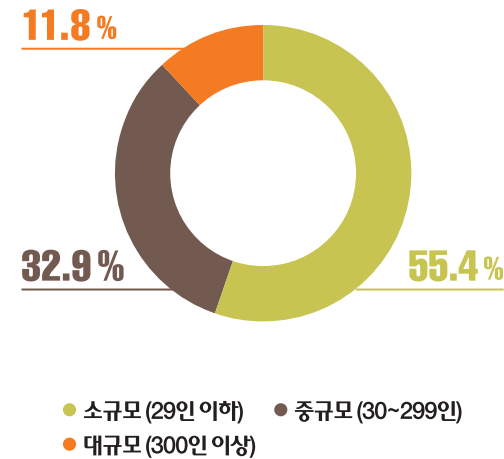
업종 설명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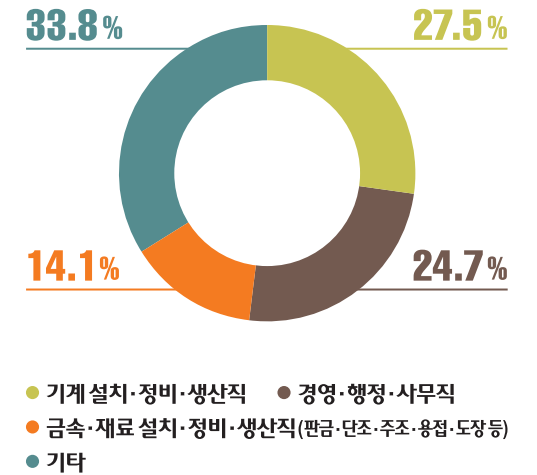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78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696천 명)의 5.3%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7.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9.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8.3%), 경기 시흥시(4.2%), 경남 김해시(3.7%), 경남 창원시 성산구(3.3%), 부산 강서구(3.3%), 인천 남동구(3.1%), 경기 안산시 단원구(3.1%)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7.5%), 경영·행정·사무직(24.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14.1%) 등으로 구성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상반기(763천 명) 대비 2.5%, 19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8.1천 명, 채용인원 39.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8.7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32.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p 높고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하면 18.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5.9%)',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1%)',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7.5%)'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7.9%),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19.7%), 제조 단순직(17.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8.0%), 경남(13.4%), 충남(7.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7.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6.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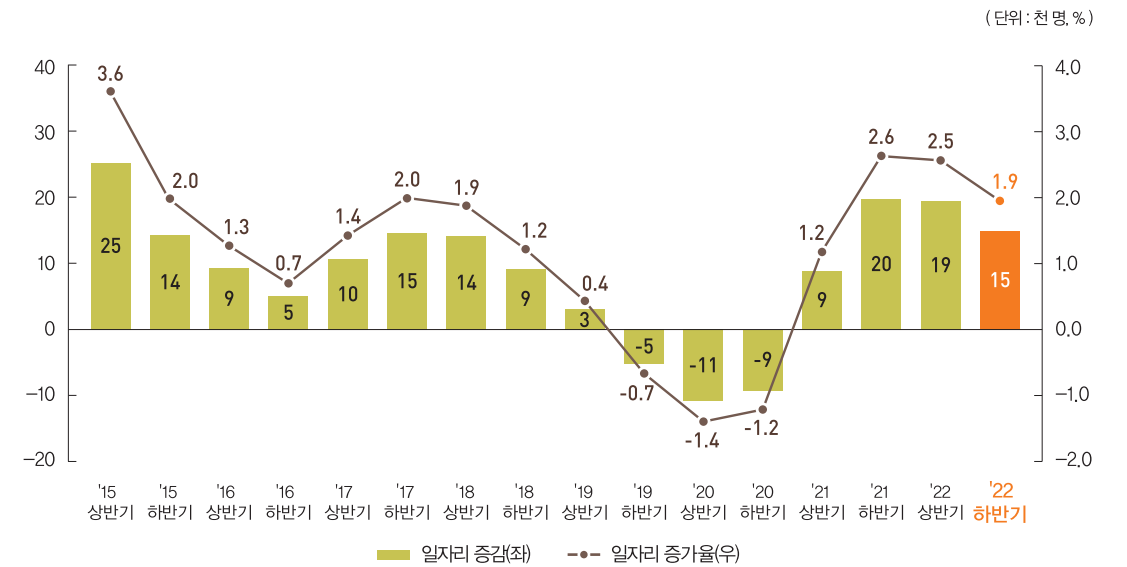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미국, 유럽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아세안 지역의 제조업 활성화로 증가세가 예상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불안정 지속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존재
 - * 2022년 하반기 일반기계부문 수출 전망 전년동기비 2.2% 증가(산업연구원, 2022.6.)
 -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요산업의 성장세가 유지되어 공작기계 수출 유지 전망
 - 단, 전 세계 경기 위축,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증가폭은 제한적
- (내수)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증가세 유지 전망
 - * 2022년 하반기 일반기계부문 내수 전망 전년동기비 1.9% 증가(산업연구원, 2022.6.)
 - 반도체 등 국내 수요산업의 호조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 장비 수급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설비 확충 차질 우려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1.2	0.4	-0.7	-1.4	-1.2	1.2	2.6	2.5	1.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하반기 기계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9%(1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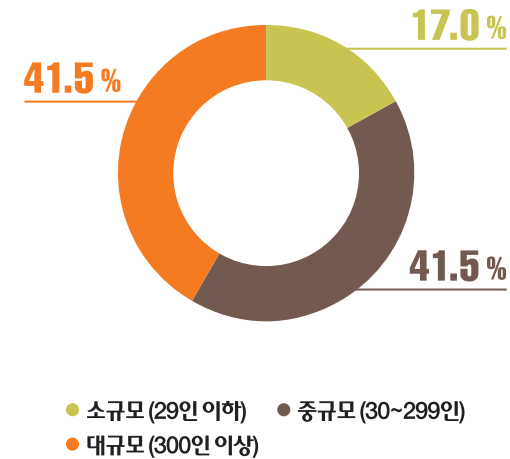
업종 설명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과 해양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조물)로 구성되는 국가 주력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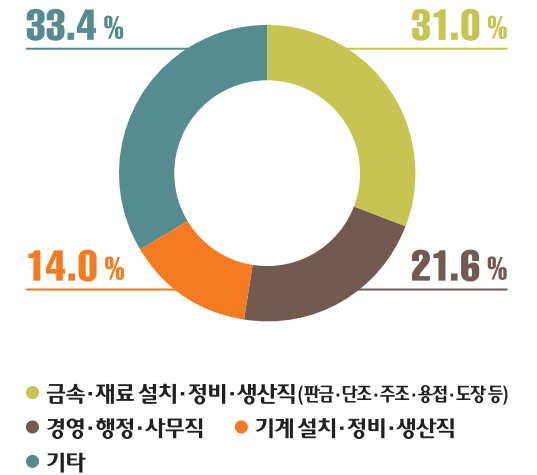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99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696천 명)의 0.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36.0%), 울산 동구(29.9%)에 전체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군(12.8%), 부산 영도구(3.4%), 경남 창원시 진해구(2.4%) 등에도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1.0%), 경영·행정·사무직(21.6%),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4.0%) 등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상반기(101천 명) 대비 1.6%, 2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했지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4.2천 명, 채용인원 2.9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3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30.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1%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하면 17.5%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31.5%)',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9.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4.1%)'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46.4%), 경영·행정·사무직(14.5%), 기계설치·정비·생산직(10.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울산(33.9%), 전남(30.1%), 경남(23.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9.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3.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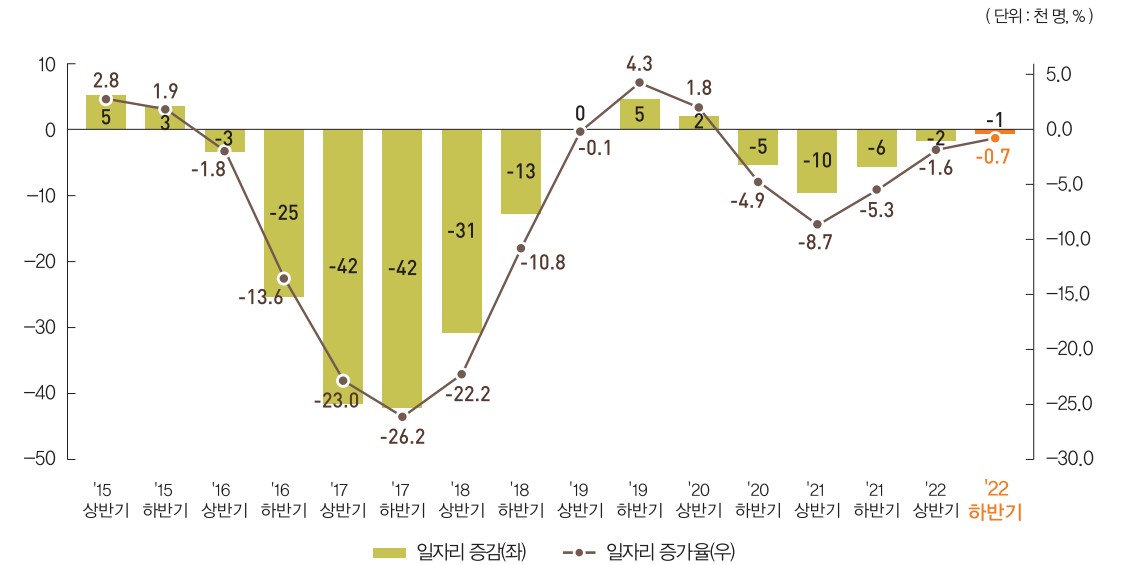
경기전망

- (산업전반) 2022년 전 세계 발주는 40.3백만CGT로 전년 대비 2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10년 평균 발주량 수준(35.7백만CGT)보다 12.9%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상승폭 제한, 다만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해양제품 발주 및 전 세계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선(FSRU 포함) 발주 기대(LNG선, 전년 동기 대비 발주량 416.5% 증가, CGT기준)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모멘텀 둔화 및 선가 급등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세로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국내 조선업) 2022년 국내 수주량은 약 14.9백만CGT로 수주 점유율 35%대 기준 전망, IMO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가스연료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라 기술 우위인 국내 조선 업종 수혜가 예상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따른 LNG 운반선,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발주 증가로 국내 조선 업종 수혜 예상됨**
- (수출) 2022년 선박류 수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발주 급감(~2020년 3분기) 영향 및 對러 수출통제로 인해 전년 대비 24.7% 감소한 173억 달러 전망**
 - * 對러 수출물량(14.5억달러) 정상 인도 시, 연간 수출액은 187.5억달러(전년대비 -18.5%)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10.8	-0.1	4.3	1.8	-4.9	-8.7	-5.3	-1.6	-0.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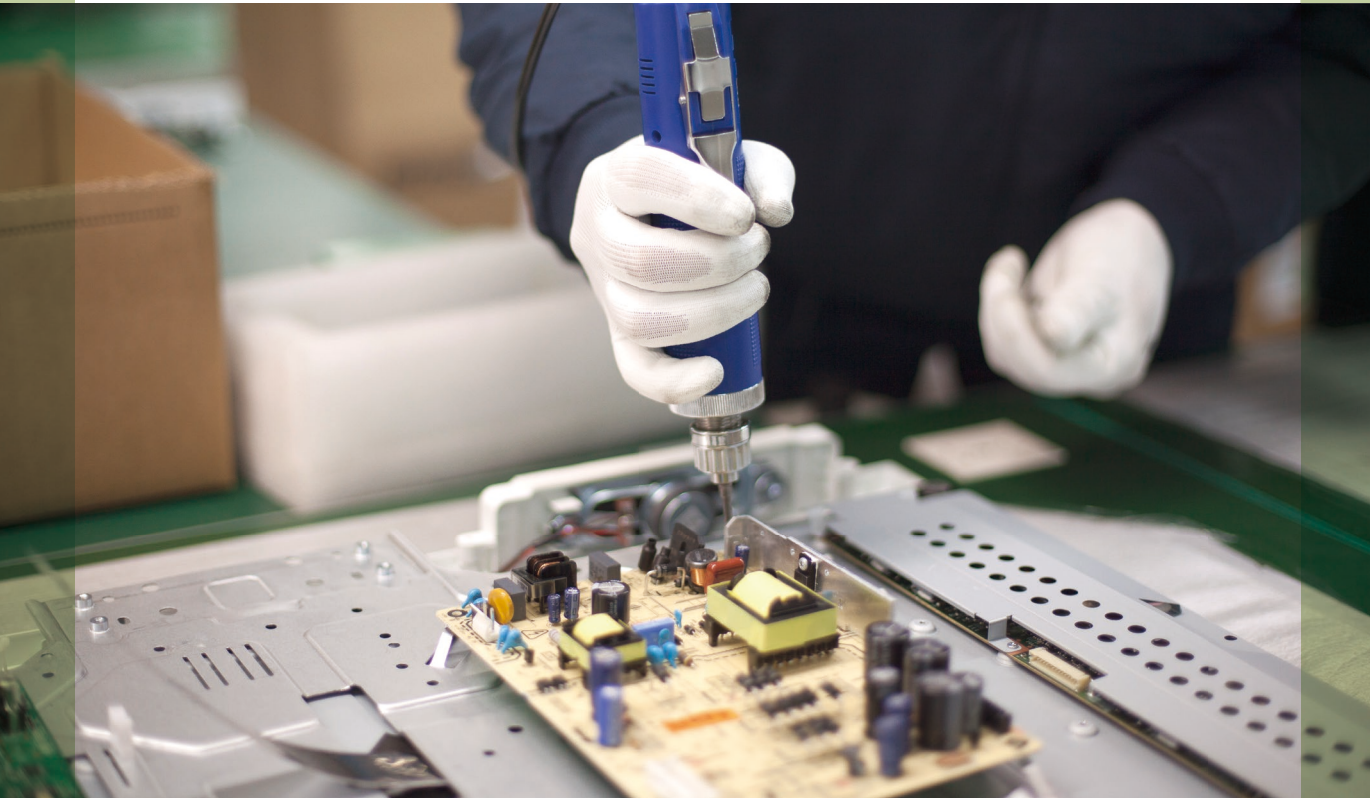
- 2022년 하반기 조선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7%(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전남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지만 경남 등의 지역은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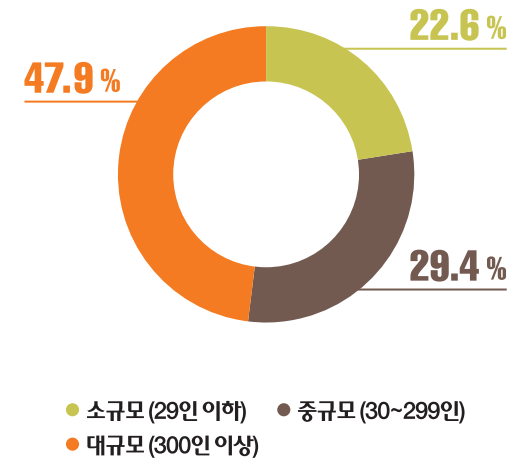
업종 설명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컴퓨터, TV, 대형가전, 이차전지, 센서 등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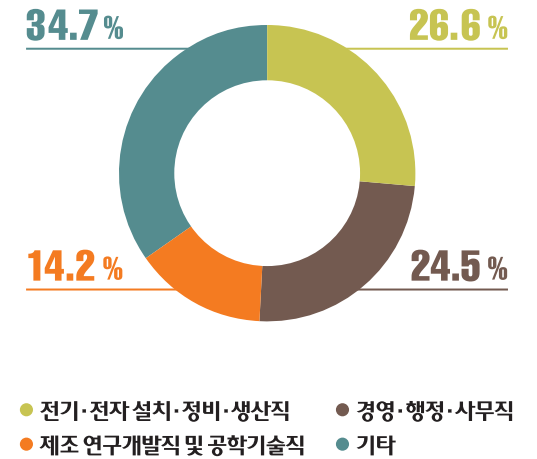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3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696천 명)의 5.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8.2%), 전기장비 제조업(3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9.4%)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18.0%), 서울 영등포구(10.1%), 경기 용인시 기흥구(5.3%), 경기 화성시(3.7%), 경기 안산시 단원구(3.6%)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6.6%), 경영·행정·사무직(24.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4.2%) 등으로 구성
-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상반기(717천 명) 대비 2.8%, 20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모두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1.0천 명, 채용인원 23.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7.8천 개
 - 전자 업종의 미충원율은 25.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하면 11.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3.6%)',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0.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2%)'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1.9%), 경영·행정·사무직(14.1%), 제조 연구 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3.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43.5%), 충북(7.3%), 경북(6.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2.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3.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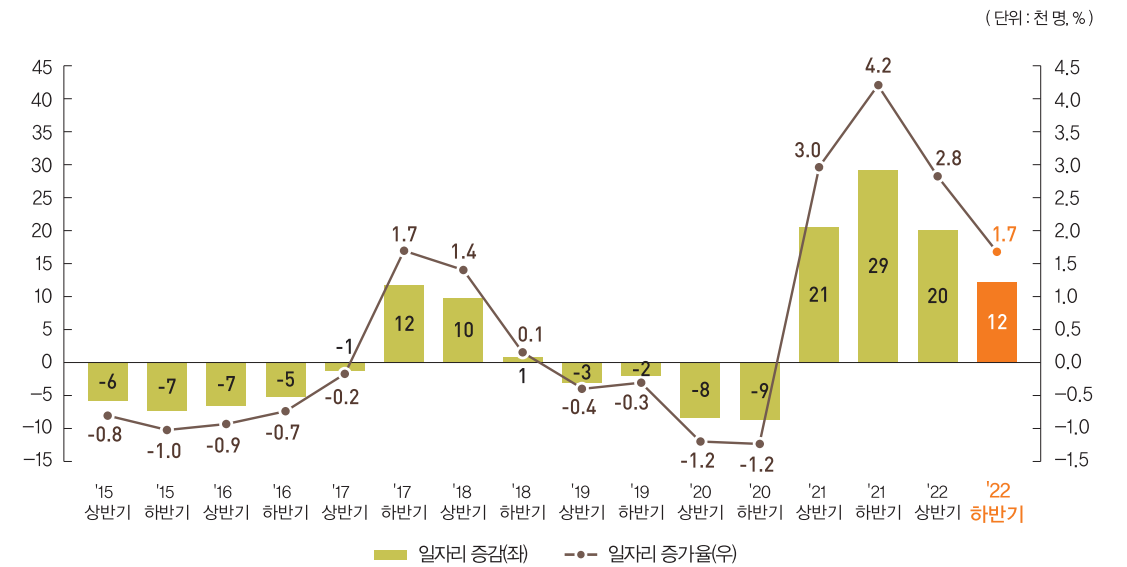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경기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불안정 지속 등의 대외여건 불확실성 심화로 증가 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
 - * IT업종(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2022년 하반기 수출 증감률은 전년동기비 1.3% 소폭 증가 전망(산업연구원, '22.5월)
 - (휴대폰) 2022년 스마트폰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의 여파로 부진이 예상
 - *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4.2% 줄어든 13억 140만 대로 반락할 것으로 예측(SA, 2022.6월)
 - (D-TV) 2022년 1분기 TV 시장은 3분기 연속 하락, 국내 업체는 TV 시장 침체 속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전망
 - * 2022년 1분기 TV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개화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TV 수요가 점차 둔화돼 출하량(4,907만 대, △4.3%)과 매출액(256억 7,500만 달러, △6.3%)이 모두 감소
 - (PC) 올해 PC 시장은 반락하겠으나 코로나19 이전 대비 높은 출하량 수준을 지속할 전망
 - * 2022년(3억 2,120만 대, △8.2%)은 대내외적인 악재 등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
 - (태블릿PC) PC 및 스마트폰과의 경쟁에 밀려 역성장에 진입할 전망
 - * 전 세계 태블릿PC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용 수요를 기반으로 2년간 반짝 성장했으나, 2022년(1억 5,800만 대, △6.2%)엔 코로나19 엔데믹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분품 부족 등으로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 전망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전자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0.1	-0.4	-0.3	-1.2	-1.2	3.0	4.2	2.8	1.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하반기 전자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7%(1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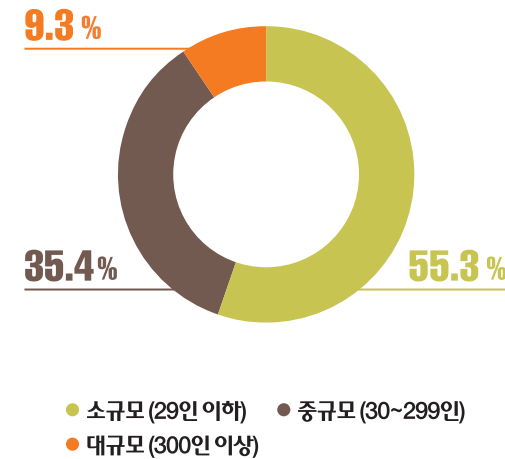
업종 설명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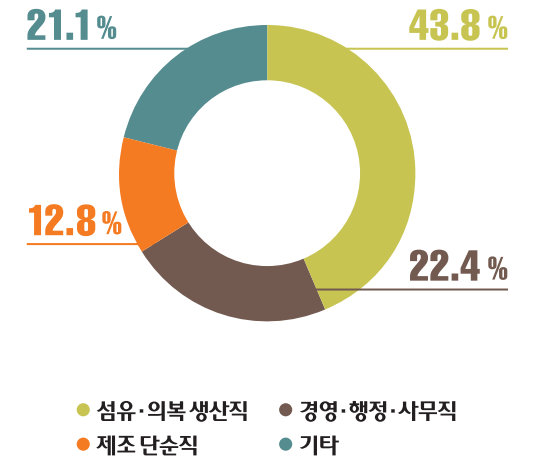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60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696천 명)의 1.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62.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6%)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7%), 경기 양주시(3.5%), 경북 구미시(3.4%), 경기 포천시(3.3%), 대구 달서구(3.1%), 서울 강남구(3.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3.8%), 경영·행정·사무직(22.4%), 제조 단순직(12.8%) 등으로 구성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상반기(161천 명) 대비 1.0%, 2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7천 명, 채용인원 6.6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1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23.2%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6%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하면 9.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4.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각 19.8%)'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8.0%), 경영·행정·사무직(16.9%), 제조 단순직(14.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29.6%), 경기(25.5%), 대구(12.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3.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인 구인인원 비중이 26.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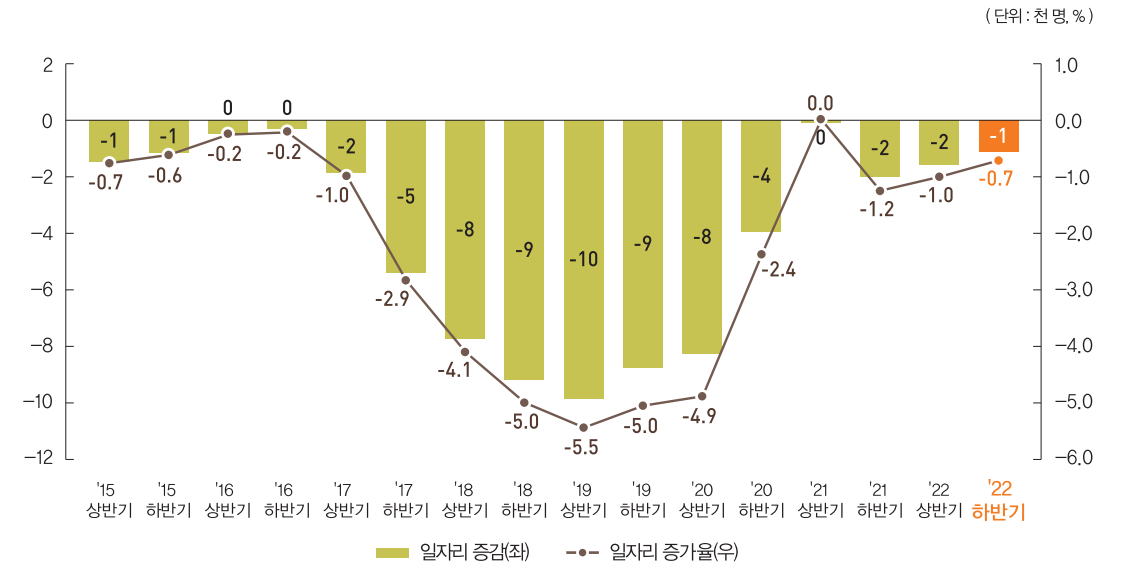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상반기에 이어 지속되는 글로벌 섬유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수출 증가세 둔화**
 - 친환경 소재 및 K-콘텐츠 등 한류 재확산으로 섬유제품(의류 포함)의 수출은 일부 증가 예상
 - * 2022년 연간 섬유류 수출 전망(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133.6(+4.3)
- (수입) 기저효과에 따른 의류 수입 증가, 채산성 악화로 국내 생산여건 부진에 따라 저가 소재 대체 수입 확대**
 - 일상회복으로 해외 소싱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재고 증가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
 - * 2022년 연간 섬유류 수입 전망(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200.3(+9.5)
- (내수)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른 소비 제약요인 완화로 의류 판매 회복세, 반면 하반기 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예상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
 - 온라인 판매 증가세 지속, 오프라인 매장의 소비자 방문 증가, 연말 보복소비에 따라 의류 등의 내수판매 확대 기대
 - * 2022년 연간 섬유류 내수 전망(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59.9(+3.5)
- (생산)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유동자금 부족 등으로 중소 섬유기업의 생산·투자 여건이 악화되어 생산 증가세 둔화**
 - 유가 상승에 따른 화석 원자재價 상승, 전기료 등의 비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급등하여 조업 일수 조정 예상
 - * 2022년 연간 섬유류 생산 전망(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61.9(+1.1)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5.0	-5.5	-5.0	-4.9	-2.4	0.0	-1.2	-1.0	-0.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하반기 섬유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7%(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서울, 울산, 전북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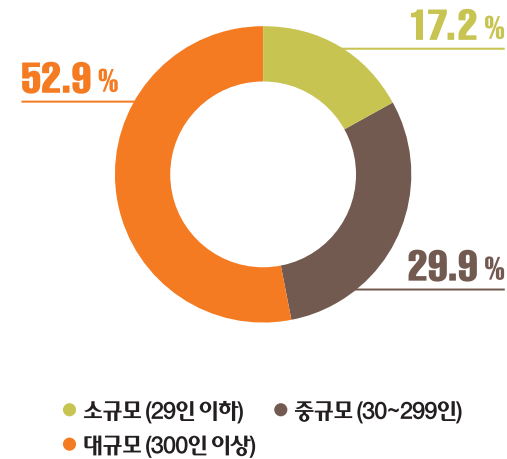
업종 설명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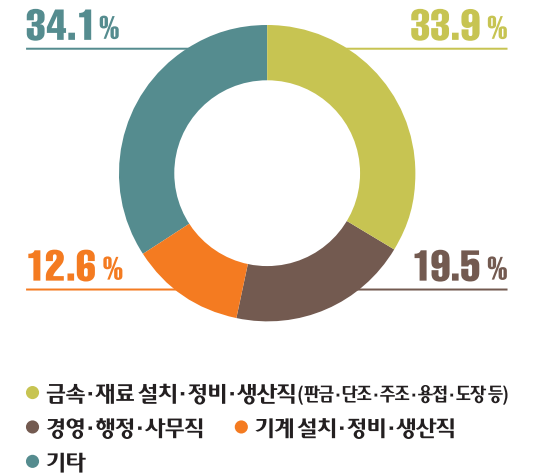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2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14,696천 명)의 0.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 남구(25.0%), 충남 당진시(11.4%), 경남 창원시 성산구(7.7%), 전남 광양시(4.3%), 울산 울주군(3.9%), 경기 안산시 단원구(3.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3.9%), 경영·행정·사무직(19.5%),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2.6%) 등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상반기(107천 명) 대비 4.4%, 5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4천 명, 채용인원 5.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2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38.4%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2%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하면 25.0%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9.8%)',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8.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3.3%)'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3.9%), 제조 단순직(25.5%), 경영·행정·사무직(11.6%)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5.5%), 경북(14.4%), 충남(8.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48.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의 구인 인원 비중이 25.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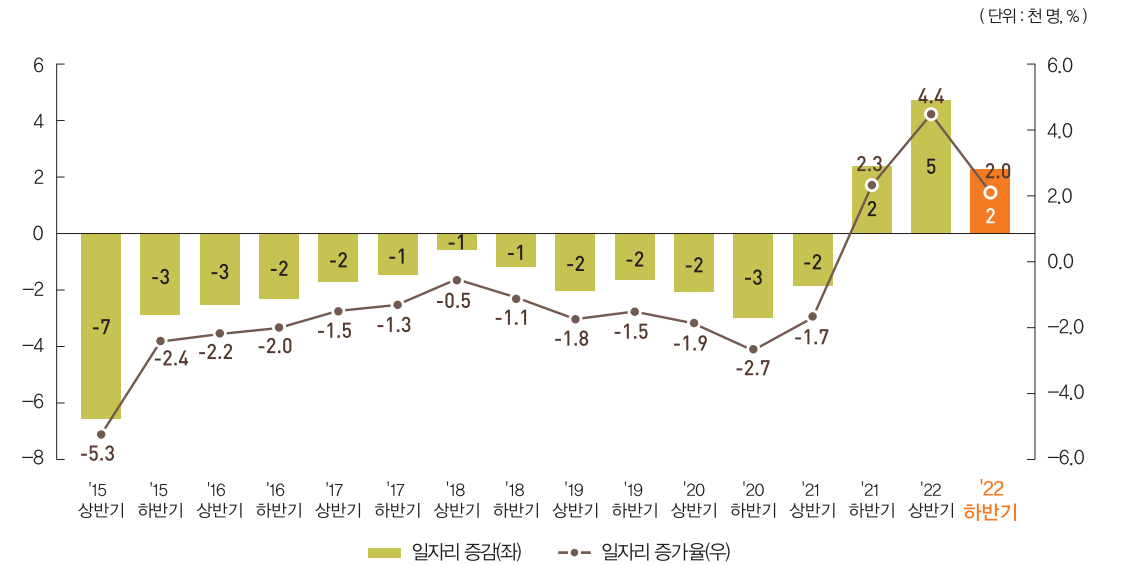
경기전망

- (내수) 조선업종을 제외한 수요산업의 회복 둔화로 2022년 내수는 전년 대비 1.1% 가량 감소한 55.4백만톤 수준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공급망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시장의 회복이 기대되나 세계적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 내수는 전년 동기비 2.1% 가량 감소한 27.6백만톤 수준으로 전망
- (수출) 국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려는 경향 및 가격 인상과 전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2022년 수출은 전년 대비 4.3% 가량 감소한 25.9백만톤 수준으로 예상**
 -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상반기에 이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어 2022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3.6% 가량 감소한 12.8백만톤 수준으로 전망
- (생산) 내수 및 수출 회복세 둔화, 수입산 유입 축소로 2022년 생산은 전년 대비 1.6% 가량 감소한 72.5백만톤 수준으로 전망**
 - 국내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로 2022년 하반기 생산은 전년 대비 1.2% 가량 감소한 36.3백만톤 수준으로 전망
- (수입) 중국의 봉쇄령 영향 및 지속적인 감산 정책으로 중국산 유입이 감소하며 2022년 수입은 전년 대비 2.7% 가량 감소한 14.2백만톤 수준으로 전망**
 -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감산 기조 유지로 2022년 하반기 수입은 전년 동기비 9.3% 가량 감소한 6.8백만톤 수준으로 전망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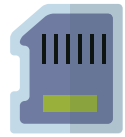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1.1	-1.8	-1.5	-1.9	-2.7	-1.7	2.3	4.4	2.0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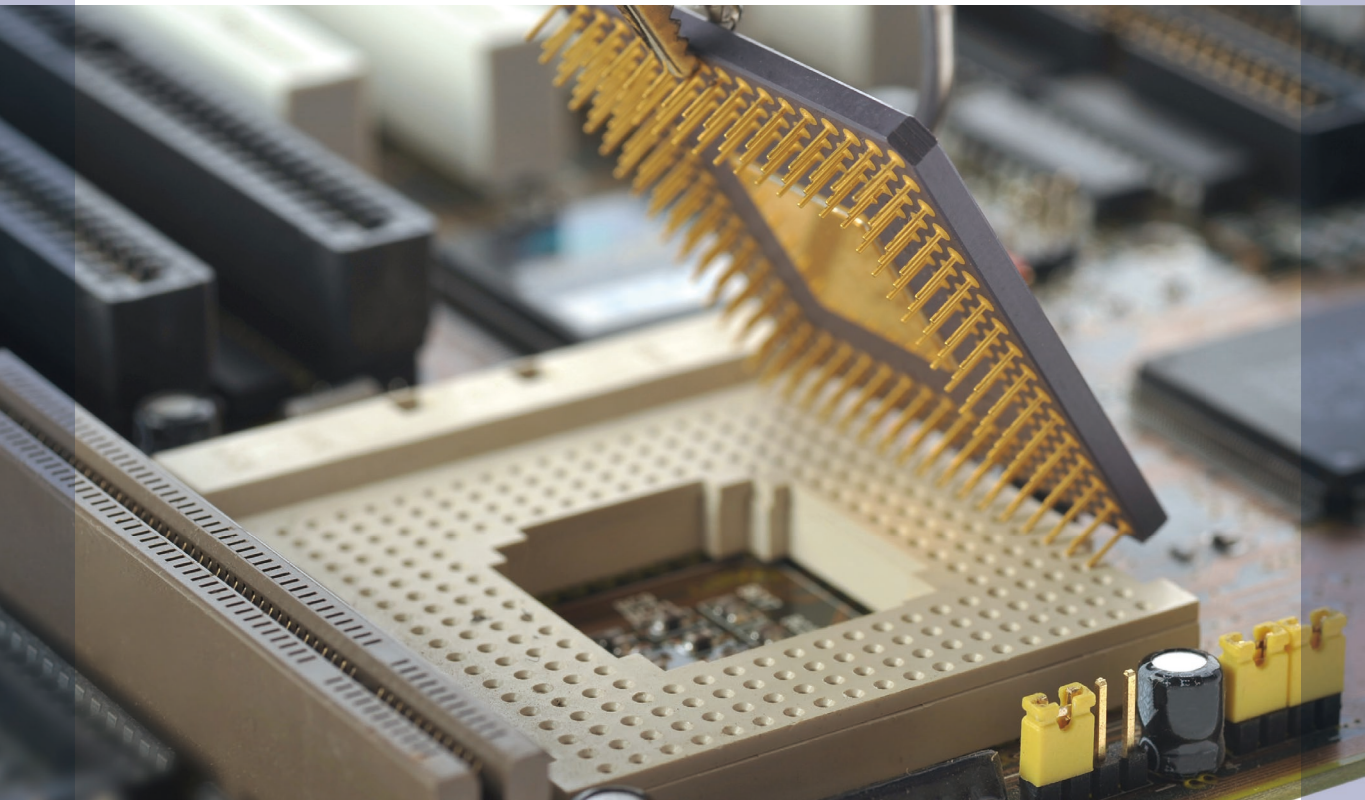
- 2022년 하반기 철강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0%(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충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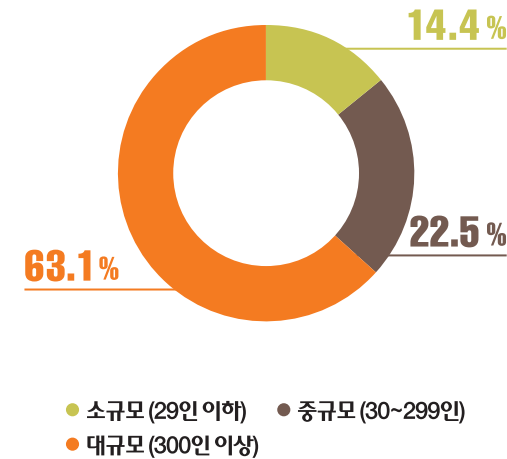
업종 설명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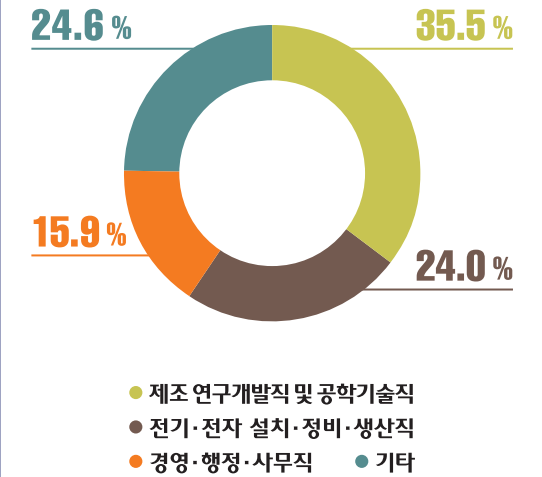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39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696천 명)의 0.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9.6%)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0.4%)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2.9%), 경기 화성시(9.5%), 충북 청주시 흥덕구(6.1%), 충남 천안시 서북구(5.9%), 경기 평택(4.9%), 경북 구미시(4.3%), 충남 아산시(4.0%), 경기 부천시(3.9%)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5.5%),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4.0%), 경영·행정·사무직(15.9%) 등으로 구성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상반기(133천 명)에 비해 4.3%, 6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0.9천 명, 채용인원 8.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5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23.1%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해도 9.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3.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4.1%)'에 이어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4.5%)'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8.9%),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0.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0.1%)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6.2%), 충남(14.8%), 인천(8.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4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6.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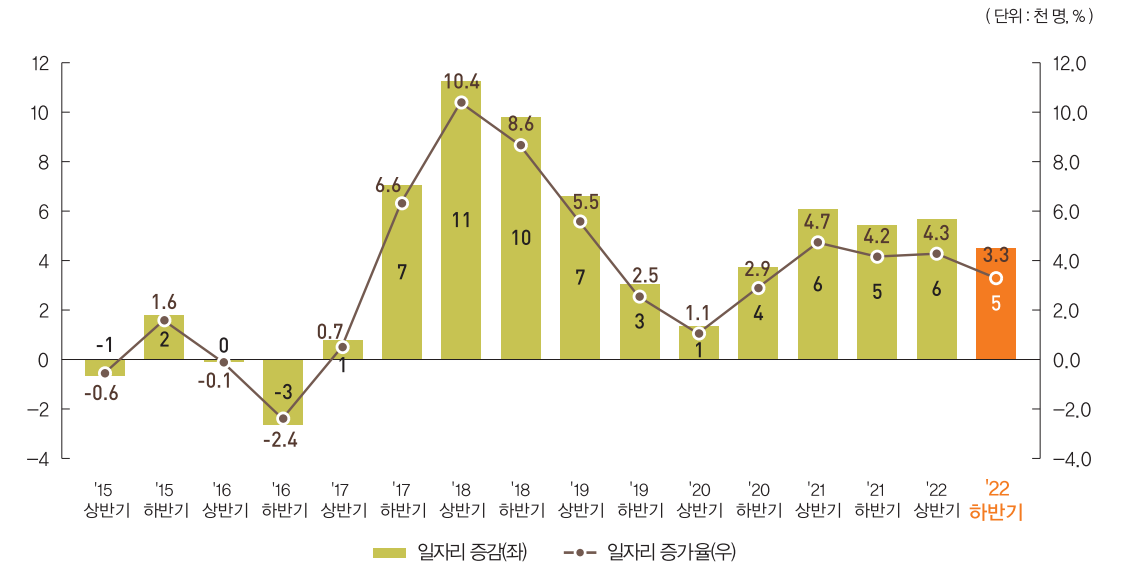
경기전망

- (전 세계 시장 전망)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1년(5,868억 달러) 대비 약 9% 증가(6,399억 달러*OMDIA전망) 하며 2021년의 호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증가율은 '21년 대비 둔화될 전망**
 - (메모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IT 등 소비자용 제품 수요 감소로 D램 및 낸드 가격 하락 전망
 - * D램 : 모바일, PC, 서버용 수요까지 둔화되며 가격 하락 예상
 - * 낸드 : 생산 차질 이슈 이후 생산량 증가로 공급과잉 지속되며 하락세 지속 전망
 - (시스템반도체) AI, IoT, 자율주행차, 5G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수요 확대에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 *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억\$, OMDIA, 2022. 3): (2020)3,443 → (2021)4,185 → (2022^e)4,469
- (수출 전망) 2022년 반도체 수출은 2021년(1,280억 달러, 역대 1위) 대비 약 7.4% 증가한 1,375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한번 역대 1위의 수출실적 경신 예상**
 - (메모리) 신규 CPU 도입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등으로 서버의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며, 서버를 제외한 전체 D램은 공급과잉에 따라 가격 하락 예상
 - * D램가격 전분기대비 증감률(TrendForce, %) : (2022.1Q)△6.7%→(2Q)△5.8%→(3Q)△4.2%→(4Q)△2.0%
 - (시스템반도체 등) 4차산업혁명,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활용이 증가하면서 파운드리 초과 수요현상 및 파운드리 단가 인상 지속
 - * 파운드리 산업은 EUV공정을 활용하는 빅테크 고객 확보, 이미지센서, DDI, PMIC 등 수요 증가를 통해 파운드리 수출 증가 전망
- (투자 전망)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22.2% 성장한 1,85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 전망**
 - 2022년은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인한 각 국가별 기존 팹 확장 및 신규 증설로 대규모 투자 지속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8.6	5.5	2.5	1.1	2.9	4.7	4.2	4.3	3.3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하반기 반도체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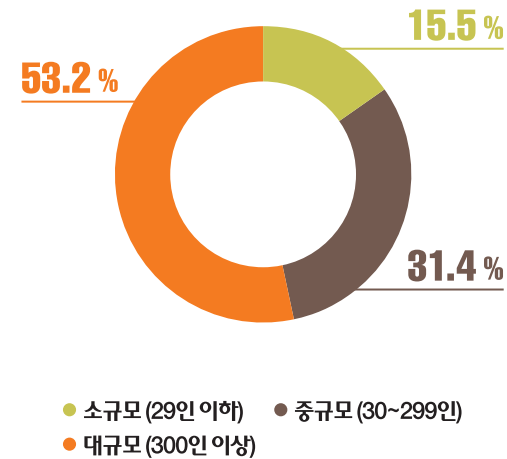
업종 설명

자동차는 최근 안정성 및 성능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화학, 섬유 등 5,0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업제품이 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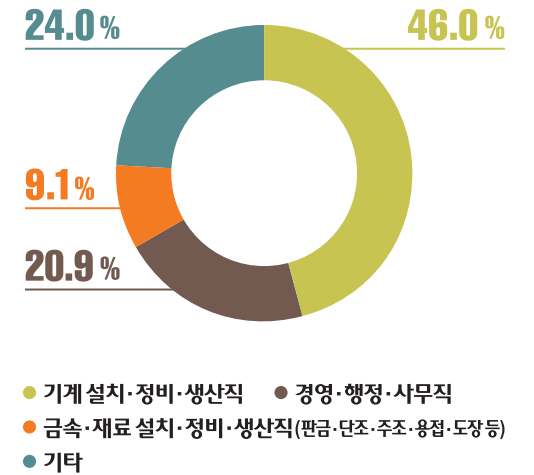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38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696천 명)의 2.6%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울산 북구(10.7%), 서울 서초구(10.6%), 경기 화성시(6.4%), 충남 아산시(4.6%), 경기 평택시(3.5%), 경남 창원시 성산구(3.4%), 경북 경주시(3.4%), 서울 강남구(3.1%)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6.0%), 경영·행정·사무직(20.9%),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9.1%) 등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21년 상반기(378천 명) 대비 1.0%, 4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4.6천 명, 채용인원 9.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8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33.3%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3%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해도 19.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5.0%)',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9.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5.9%)'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37.9%), 경영·행정·사무직(18.0%), 제조 단순직(17.1%)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충남(17.2%), 경기(16.0%), 경북(13.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 경험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1.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 인력의 구인 인원 비중이 31.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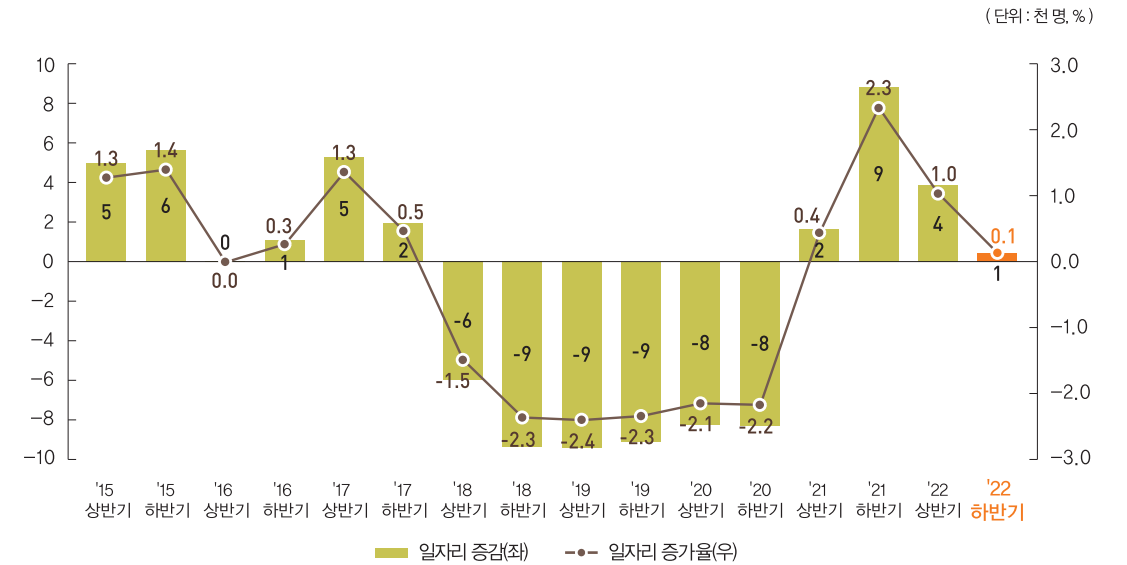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2년도 하반기는 친환경차 수출 및 판매호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누적된 이연 수요와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증가할 전망**
 - (내수)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생산 차질, 경기 위축 등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그간 출고지연으로 발생한 이연물량과 견조한 친환경차 수요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 또는 비슷할 전망
 - (수출) 국내 브랜드의 해외 판매호조 및 친환경차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자동차 수요 위축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
 - (생산)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의 점진적 완화 가능성과 전년도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와 불안정한 부품 수급 상황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 등 하방 요인 존재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	-2.4	-2.3	-2.1	-2.2	0.4	2.3	1.0	0.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울산, 경기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서울, 충남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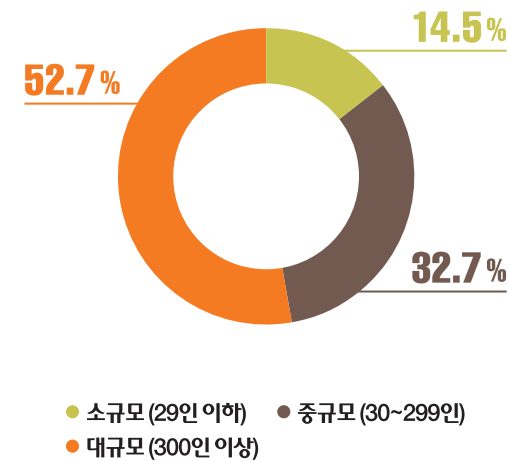
업종 설명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선도 중인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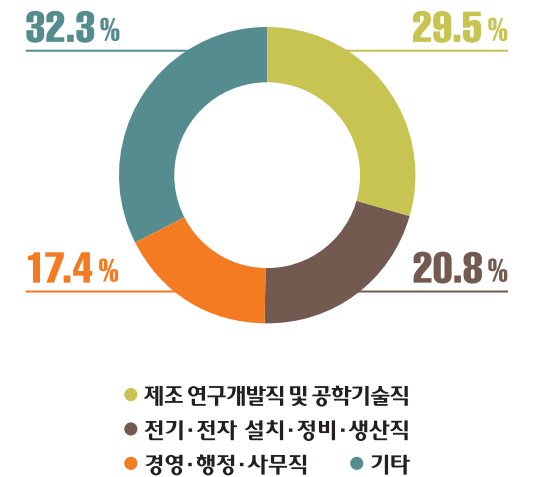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9천 명 수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52.7%로 절반 이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14.5% 수준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9.5%),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0.8%), 경영·행정·사무직(17.4%)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상반기(119천 명)에 비해 0.3% 소폭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했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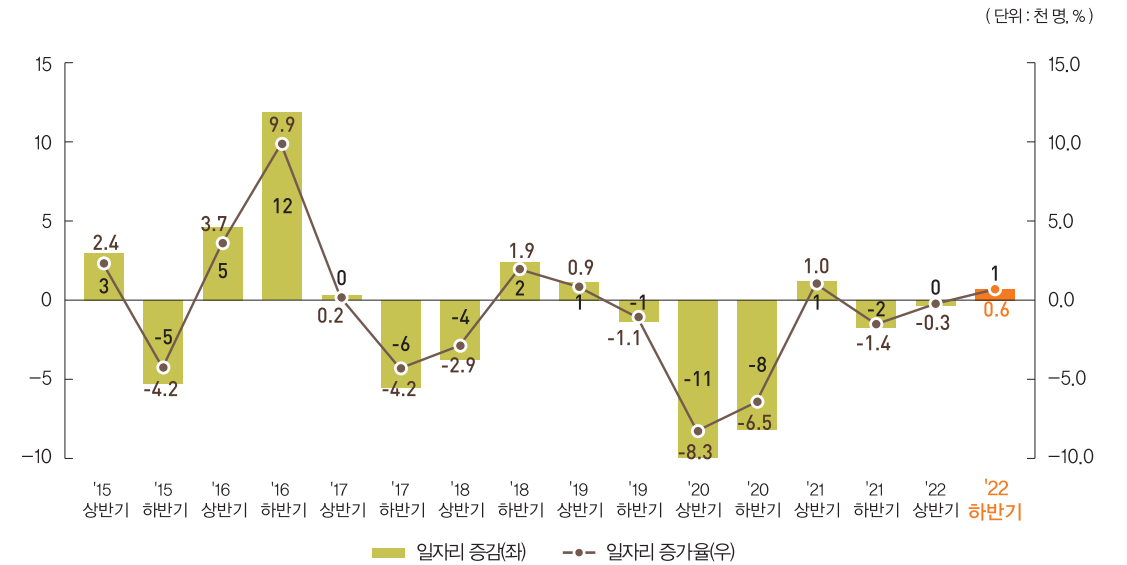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7.1천 명, 채용인원 5.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8천 개
 - 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25.9%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0.5%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하면 12.5%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2.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6.4%)',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3.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5.2%),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3.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9.1%)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64.5%), 충남(15.8%), 충북(7.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8.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1.6%로 나타남

경기전망

- (세계시장) 2022년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LCD 시장 축소로 전년대비 8.0% 감소한 1,453억 달러 전망
 - (OLED) 모바일·TV뿐 아니라 IT 제품 신수요 증가와 폴더블, LTPO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에 따라 시장규모 지속 성장(6.8%)
 - * 전 세계 OLED 출하량(백만대) : [TV](2021)8.0→(2022)9.4, [모바일](2021)612→(2022)677, [태블릿](2021)3.5→(2022)4.8
 - * 전 세계 모바일 OLED 시장에서의 비중(%) : [폴더블](2021)1.6→(2022)3.0, [LTPO](2021)11.4→(2022)23.7
 - (LCD) 전 세계 시장 성숙 속에 2021년 크게 증가한 언택트 수요마저 감소하고, LCD 가격 하락까지 동반하면서 시장규모 역성장(13.4%)
 - * 전 세계 LCD 출하량(백만대) : [TV](2021)259→(2022)258, [노트북](2021)276→(2022)264, [태블릿](2021)283→(2022)267
 - * TV용 LCD 가격(\$): [55"](2021)195→(2022)141, [65"](2021)261→(2022)187
- (수출전망)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와 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2022년 수출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215억 달러 전망
 - * 2022년 수출(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전체) 215(0.5%), (OLED) 169(16.1%), (LCD) 46(△32.5%)
 - (OLED) 수요가 모바일·TV에서 IT 제품으로 확대되며, 폴더블·LTPO 등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에 전년대비 16.1% 증가한 169억 달러
 - * 한국이 100%(2021년) 점유한 모바일 LTPO 비중이 2021년 22.8%에서 2022년 39.1% 확대 예상
 - (LCD) 국내 생산 축소와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32.5% 감소한 46억 달러
 - * 국내 LCD 생산Capa(백만㎡) : (2021)45.6→(2022)43.2
 - * 전 세계 LCD 가격(\$): [55인치] (2021)183→(2022)118, [65인치] (2021)253→(2022)183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1.9	0.9	-1.1	-8.3	-6.5	1.0	-1.4	-0.3	0.6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6%(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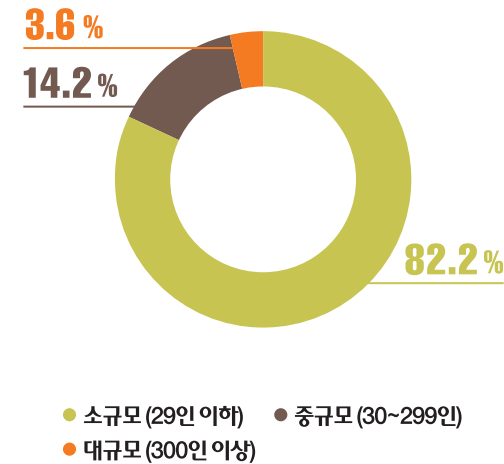
업종 설명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항만 교량 등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 내지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국가중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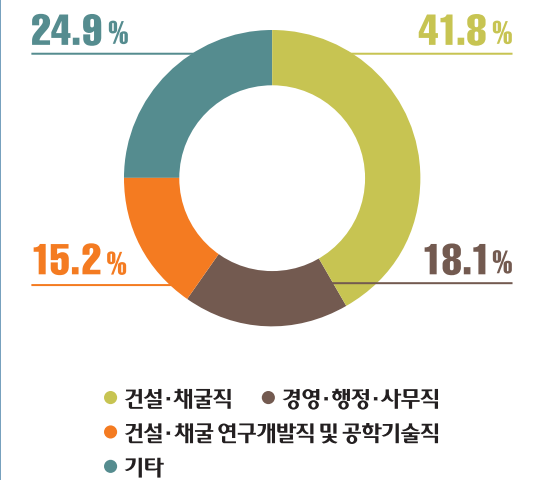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117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7,858천 명)의 7.6%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41.8%), 경영·행정·사무직(18.1%),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5.2%) 등으로 구성
-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21년 상반기(2,051천 명)에 비해 3.2%, 66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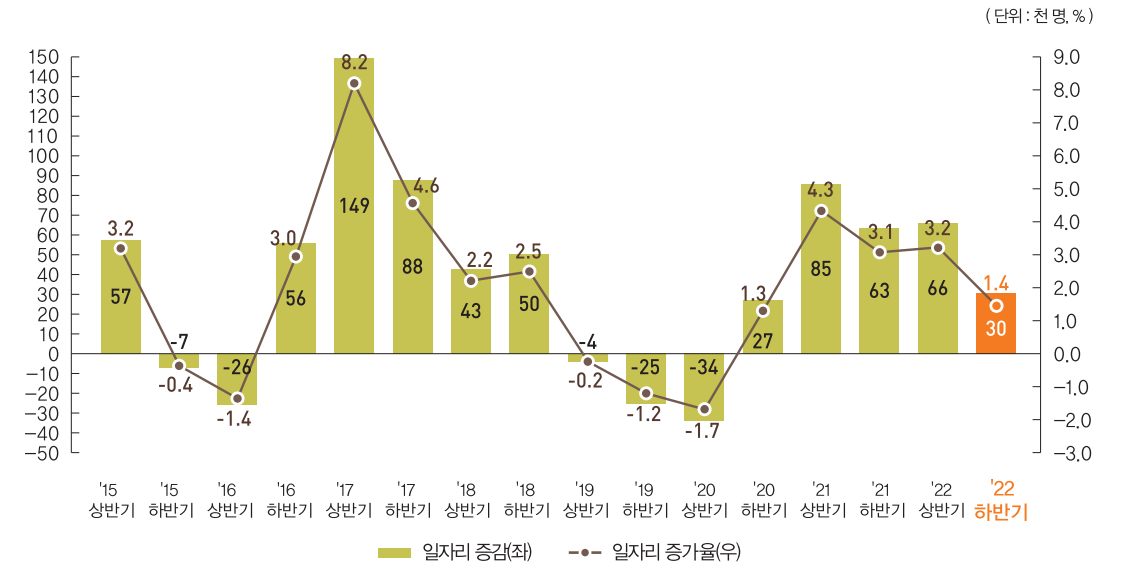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48.7천 명, 채용인원 140.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8.4천 개**
 - 건설 업종의 미충원율은 5.6%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5%p 높게 나타났으며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하면 7.8%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6.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1.8%)'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8%)'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67.0%),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9.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5.8%)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17.4%), 서울(16.3%), 강원(7.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 인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38.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7.3%로 나타남

경기전망

- 2022년 하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증가. 공공, 민간 건설 모두 2020년 대비 증가
 - 2022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지속
 - 2022년 하반기에는 자재비용, 금융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민간 부문 수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비주거 건축 수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다만 토목 수주는 증가세 유지 예상
- 건설 투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토목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자재가격 상승도 건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2022년 하반기에는 건축 투자가 증가하면서 건설투자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건설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5	-0.2	-1.2	-1.7	1.3	4.3	3.1	3.2	1.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하반기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4%(30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융 및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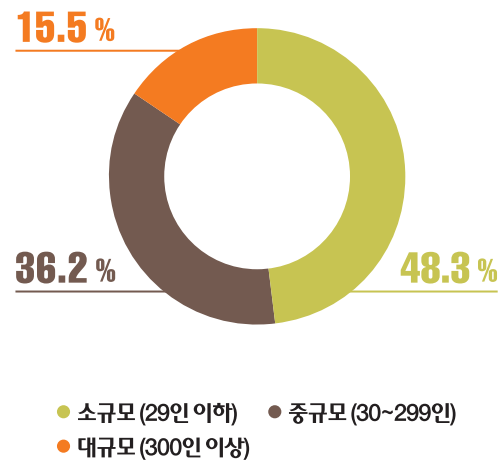
업종 설명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 조달한 자금을 위한 금융중개 업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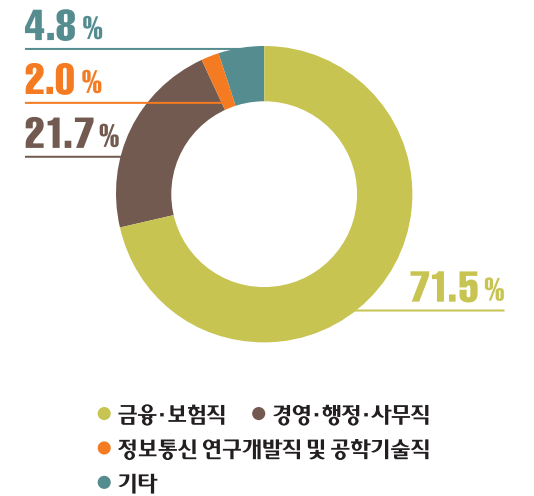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상반기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770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 (27,858천 명)의 2.8%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71.5%), 경영·행정·사무직(21.7%), 정보 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0%) 등으로 구성
-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2021년 상반기(803천 명)에 비해 4.1%, 33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7.8천 명, 채용인원 23.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6천 개**
 - 금융 및 보험업종의 미충원율은 16.6%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1%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3.4%)과 비교하면 3.2%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1.1%)', '기타(18.4%)',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7.5%)'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71.1%), 경영·행정·사무직(21.2%),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2.6%)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46.3%), 경기(17.2%), 부산(5.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46.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 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4.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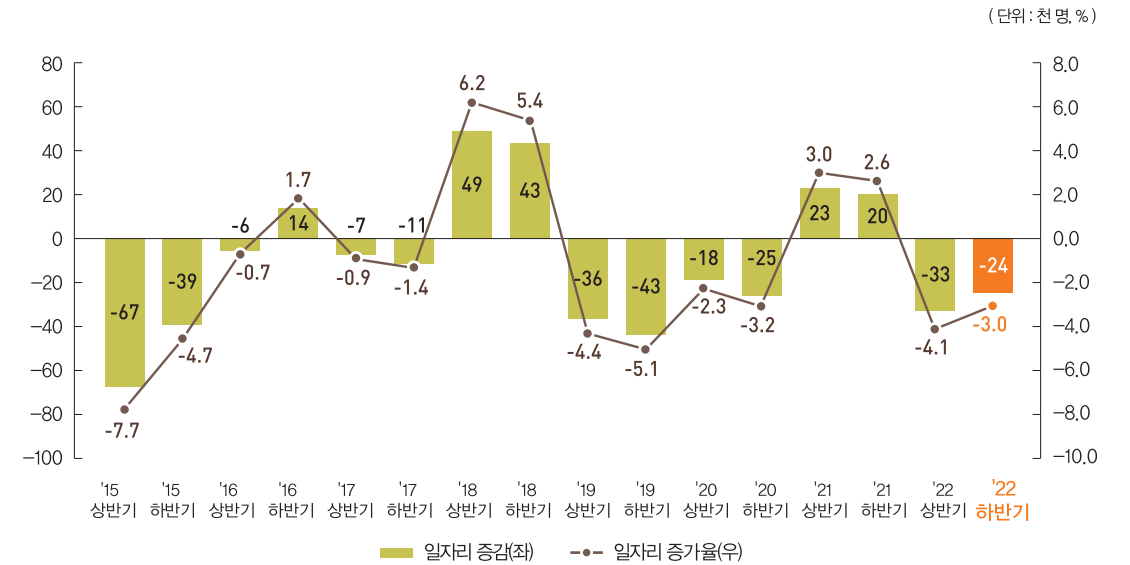
경기전망

- 은행 산업은 2022년 하반기에도 순이익 증가 전망**
 - 은행 산업은 2022년 상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면서 이자이익 증가
 - 2022년 하반기에도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순이익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금리 상승,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으로 인한 부실여신 증가 위험이 잠재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증가세를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보험 산업의 전반적 영업**
 - 코로나19 확산의 충격 완화, 금리 상승은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만 주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손해보험 산업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다만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은 손해보험 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신용카드 산업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증권 산업은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업황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금융 및 보험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일자리 증가율(%)²⁾

'18하반기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5.4	-4.4	-5.1	-2.3	-3.2	3.0	2.6	-4.1	-3.0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하반기 금융 및 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2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용어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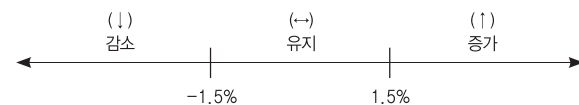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일자리 수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 일자리 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디스플레이 업종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건설, 금융 및 보험 업종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함



일자리 증가율(%) = $\frac{\text{이번기 일자리 증감}}{\text{전년 동기 일자리 수}} \times 100$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판단 기준



미충원율(%) = $\frac{\text{미충원 인원}}{\text{구인 인원}}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업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기초로 하며, 디스플레이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업종별 일자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 * 전망 모형 등 자세한 전망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방법 (2015, 이시균, 강민정)" 보고서를 참조

2022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